

후지모리 테루노부 건축의 돌출기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iercing Column of Terunobu Fujimori Architecture

김 현 섭*

Kim, Hyon-Sob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Abstract

This paper aimed at investigating into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Japanese architect Terunobu Fujimori's 'piercing column', and drew a conclusion as follows. First, the piercing column that made its first appearance in his architect debut work Jinchokan Moriya Historical Museum (1991) was conceived unexpectedly from pencil lines on a sketch that went through over the building's roof. And the tree-like natural treatment of the column's surface was influenced by Takamasa Yoshizaka's description of a Mongolian mud-house. Second, most of piercing columns in his later works have nothing to do with a structural role as in Jinchokan, but were designed for a visual effect and as a symbolic gesture. Again, they allude to a tree in nature through a roughly peeling treatment of the surface. Third, considering his ideas in *History of Humankind and Architecture* (2005), his column could be related to a universal origin of architecture and a symbol of the sun-god faith, and in particular to independent columns of Japanese Shito shrines, such as 'Onbashira' in Suwa and 'Iwanbashira' in Izumo. That is to say, the Fujimori column is a medium that implies the animistic nature-faith of Japan. Nevertheless, Fujimori's naturalism hints at a disquieting quality through an intentional artificiality and a provocative conflict between structure and finish of a building, which might be one aspect of the modern condition, 'uncanny'.

주제어: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照信), 돌출기둥(突き出す柱), 후지모리 기둥, 진초칸 모리야사료관, 상징
Keywords: Terunobu Fujimori, piercing column, Fujimori column, Jinchokan Moriya Historical Museum, symbol

1. 서론

일본 근대건축사의 권위자인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照信, 1946~)는¹⁾ 1991년 첫 설계 작품인 진초칸 모리야사료관(神長官守矢史料館; 이후 '진초칸')을 완성한 이래 건축가로서 더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2006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에 커미셔너로서 출품한 일은 '건축가 후지모리'를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지금까지 20여 건축물을 실현시켰으며, 전시용 차

실(茶室)과 도시계획안 등의 여타 디자인을 포함할 때 작품 수는 훨씬 증가한다. 후지모리 건축에 대한 지금까지의 몇 가지 평가를 종합한다면, 그의 작품은 원시주의와 미래주의, 그리고 노스텔지어와 낯섬을 동시에 표출하는 특징이 있으며,²⁾ 유희적 요소도 진하게 머금어 일본 SF 애니메이션 속의 건축 이미지를 연상시킬 때도 많다.³⁾ 또한, 후자는 '야방-가르드(野蠻ギャルド;

* Corresponding Author: archistory@korea.ac.kr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2-0003136)

1) 후지모리의 대표 저서로 『明治の東京計画』(1982), 『日本近代思想大系19: 都市・建築』(1990), 『昭和住宅物語』(1990), 『日本の近代建築』(1993), 『丹下健三』(2002), 『人類と建築の歴史』(2005) 등을 들 수 있다.

2) 특히 '토착적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부터 날아와 착지한 듯'하다는 이토 토요의 말과 '본 적이 없음에도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는 쿠마 켄고의 의견이 유효해 보인다. 伊東豊雄×藤森照信, 「憧れと研究, 原点と設計」, 『藤森照信読本』, 二川幸夫(編), GA, 東京, 2010, pp. 280-291 & 隈研吾, 「見たことがないのに懐かしい」, 『建築フル-001: 神長官守矢史料館』, 藤塚光政(編), TOTO, 東京, 1992.

3) 후지모리 건축은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1941~)의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테마와 유사성을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로는 '도로부네'(2010)라 명명된 차실을 보시오. 拙稿, 「미래소년 '테루보'의 신나는 건축모험: 도로부네에서 조망하는 후지모리 테루노부의 건축세계」, 『SPACE』, 536호 (2012.7), pp. 16-21.

Y'avant-garde'라는 말로 그의 건축을 규정하여⁴⁾ '원시성을 향한 전위'를 적확하고도 재미있게 요약했다. '야만'의 일본어 발음 '야방'에 전위(前衛)를 뜻하는 '야방가르드'를 결합한 것이다. 한편, 후지모리(2007) 스스로는 자신의 건축을 '인터내셔널 버내큘러(International Vernacular)'라는 용어로 느슨하게 지칭한 바 있다. 이것은 20세기의 '국제주의 양식'을 뒤로 하고 석기시대에 존재했던 최초의 국제주의로 지향함을 의미한다. 그는 사실 이 말에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으나, 자기의 디자인 원칙으로 다음 두 가지만큼은 분명히 내세운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어떤 건물과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연소재와 식물을 건물에 도입한다는 것이다.⁵⁾

이 같이 흥미로운 후지모리의 건축 경향과 몇몇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시됐다고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출판된 그의 건축에 대한 문헌은 도판 중심의 건축개요 수준이거나 후지모리 자신의 글과 인터뷰를 근간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의 건축에 대해 최근 출판된 가장 포괄적 문헌의 예로 『藤森照信讀本』(2010)과 『NA建築家シリーズ 04: 藤森照信』(2011)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인터뷰나 그간의 기사를 편집한 것으로서 여전히 1차 자료의 묶음이라는 성격이 짙다. 따라서 그의 건축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훨씬 폭넓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⁶⁾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고는 후지모리 건축에 대해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 연구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그의 독특한 건축어휘 가운데 하나인 '돌출기둥(突き出す柱)'을 주제로 한다. 여기서 '돌출기둥'이라 함은 처마 아래의 (독립)기둥이 실질적 구조와는 무관하게 지붕을 꿰뚫고 그 위까지 돌출된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우리말의 '돌출'이 튀어나움을 뜻하는 반면, 일본어 '츠크(突く)'에 포함된 '관통'의 의미가 희박함은 감안해야 할 사항이다.) '돌출하다(突き出す)'라는 동사는 후지모리 스스로도 간혹 사용한 바 있지만⁷⁾ 아직은 서술적 표현에

머문 것인데, 본고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기둥(柱)'과 묶어 합성명사를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텍스트를 떼어놓고 '돌출기둥'이라 할 때 이것이 후지모리의 기둥만을 지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이 연구는 후지모리의 돌출기둥을 '후지모리 기둥(藤森柱)'이라고도 고유명사화하여 부를 것이다.

후지모리의 돌출기둥은 그의 데뷔작인 진초칸에서 고안되어, 이후의 건물에 계속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진초칸에서처럼 '기둥이 실제로 지붕을 관통하여 돌



Fig.1 Jinchokan Moriya Historical Museum, 1989~91

출된 것'으로부터 '기둥이 지붕을 관통하여 돌출된 듯 보이도록 이미지를 연출한 것'으로까지 확대된다. 그야말로 '야방'적인 도발이라 하겠으며, 그만큼 기둥 돌출에 대한 그의 집착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후지모리는 무슨 까닭으로 이런 기둥을 디자인하는 것일까? 이 같은 돌출기둥은 어떤 연유로 도입됐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질문 아래 후지모리 기둥의 연원과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돌출기둥의 출현 배경을 살필 것이다. 이는 진초칸의 디자인 발전과정과 맞물리는데, 특히 돌출기둥의 출현 경위가 묘사된 후지모리의 글과 스케치를 발굴하여 해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둘째로는, 돌출기둥이 적용된 이후의 사례들을 고찰함으로써 이 디자인 어휘가 어떠한 변이를 가지는지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출기둥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이 연구는 문헌발굴과 분석 및 현장답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후지모리 교수와의 인터뷰도 수반했음을 밝힌다.

2. 후지모리 기둥의 출현과 적용

기능상으로는 필요 없지만, 독립기둥을 세우면 그것을 지붕 위로 관통시키고 싶어진다. (藤森照信, 2007)⁸⁾

2-1. 진초칸의 디자인과 돌출기둥의 시작

후지모리가 돌출기둥을 처음 도입한 진초칸의 설계 배경을 보자. 동경대 건축사 교수로서 입지를 굳혀가던 후

보시오. 하지만 주8)에서와 같이 '突き抜く' 등의 다른 유사한 표현도 사용된다.

8) “機能上は不要だが、独立柱を立てると、屋根を突き抜きたくなる。” 藤森照信, 『藤森照信建築』, TOTO, 東京, 2007, p. 364.

4) 이 용어는 1998년 TOTO의 '갤러리 마' 전시회 및 도록을 위해 담당자가 고안한 것이다. 藤森照信, 『藤森照信 野蛮ギャルド建築』, TOTO, 東京, 1998.

5) 藤森照信, 「人類の建築をめざして」, 『藤森照信建築』, TOTO, 東京, 2007, p. 44.

6) 후지모리의 건축에 대한 연구 현황 및 일본 내외에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拙稿, 「폐허와 소생의 환시: 후지모리 테루노부의 졸업설계(1971)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권 9호 (2012.9), pp. 203-210.

7) 예컨대 『藤森照信 野蛮ギャルド建築』(1998, p. 22), 『タンポポハウスのできるまで』(2001, p. 58), 『TOTO通信』(2010 夏, p. 46) 등을

지모리는 1989년⁹⁾ 고향인 나가노현 치노시(茅野市)로부터 이 건물에 대해 상담 받는다. 모리야(矢史) 가문은 치노가 속해 있는 신사(神社)인 스와타이샤 상사(諏訪大社 上社)의 우두머리 신관(神官)을 맡고 있는 집안으로서 그들의 사료를 보관하고 전시할 작은 박물관을 원했던 것이다.¹⁰⁾ 동북대 학부 졸업작품(1971) 이후 근 20년 만에 설계를 진행한 후지모리는 지방색에 따라야 하지만 그곳의 민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철, 유리의 현대적 건축물도 역시 타당치 않다는 생각으로 고심을 반복했다. 특히 역사



Fig.2 Jinchokan columns at the entrance



Fig.3 Jinchokan column independent of the roof

가로서 동시대 누군가의 건축물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대단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현재의 건물인데, 전체적으로 두 개의 매스가 결합된 형태다. 하나는 정사각형 평면의 2층 높이 매스로서 사모지붕에 벽면이 살짝 안쪽으로 기울었으며, 내외벽 모두 벗짚을 섞은 진흙 색깔의 모르타르를 발라 흙벽처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하나는 직사각형 평면의 단층 높이 매스로서 출입구 쪽으로 하강하는 경사지붕과 수직으로 쪼갠 나무널 외장이 특징이다. 지붕은 두 매스 모두 지역 전래의 철평석으로 마감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 민가를 따르지는 않았으나 토착적 이미지를 강하게 발산하며 시골 풍경에 조응한다. 그러나 마감 안에 숨겨진 현대적 철근콘크리트 벽체는 구조와 마감의 불일치라는 중요한 이슈를 던져준다. 이는 진초칸을 전통적 구법 및 근대주의 원칙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인자다.¹¹⁾

9) 이때는 그가 일본 근대건축사에 대해 가장 널리 보급된 책이자 자신의 대표 저서라 할 수 있는 『日本の近代建築』의 집필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藤森照信, 2007, p. 32.

10) 진초칸의 주주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藤森照信, 「神長官守矢史料館願末」, 『タンポポ・ハウスのできるまで』, 朝日文庫, 東京, 2001, pp. 41-146[41-45].

11) 후지모리 건축에 나타나는 구조와 마감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상을 배경으로 서있는 것이 출입구 처마의 돌출기둥이다. 이는 출입문 양쪽에 두 개씩 모두 네 개로 구성되는데, 중앙의 두 개는 처마 아래의 기둥 키만큼 지붕 위로 솟았고 바깥쪽 두 개는 지붕 위로 살짝 머리를 내민 정도다. 처마 아래서 이들은 수평재와 결구되며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듯 서있지만,¹²⁾ 실상 이 부재들의 조합은 입면의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¹³⁾ 즉, 진초칸 돌출기둥은 구조와 전혀 무관히 독립적으로 섰으며, 따라서 실질적 기능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고 하겠다.

2-2. 돌출기둥의 출현 경위

이 같은 후지모리의 기둥은 어떠한 연원을 가지고 있을까? 본고는 진초칸에 돌출기둥이 도입되는 데에 크게 세 단계의 경위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단계 설정은 전체적인 디자인 발전과정과 일치한다. 첫째는 지역 민가 형식의 영향 단계이고, 둘째는 몽고 진흙집의 영향 단계이며, 셋째는 도면상에서 지붕 위로 우연히 기둥선을 돌출시킨 디자인 마무리 단계다.

(1) 단계 1: 지역 민가를 따른 처마 아래의 기둥

진초칸을 위한 후지모리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지역 민가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이었다<Fig.4>.¹⁴⁾ 그러나 이 계획안은 그를 고뇌하게 만든다. 민가의 전통은 기껏해야 중세에 시작됐지만 신사의 뿌리는 야요이시대(弥生時代; BC 300~AD 300)까지, 그리고 모리야의 신앙은 그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전술했듯 후지모리는 이 계획안을 곧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최초안에는 실현된 건물의 요소가 이미 여럿 내재한다. 특히 자연재료 마감을 통한 토착성의 발현이 그러한데, 도면 위에 적혀있는 ‘검정색 슬레이트(黑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듯싶다.

12) 굳이 일본의 목구조 전통을 따라 설명한다면, 기둥 사이를 관통하는 수평재[貫: ぬき]가 보방향[梁行: はりゆき]과 도리방향[桁行: けたゆき]으로 머리를 빼며[頭貫: かしらぬき] 결구돼 있고, 보방향에서 돌출된 수평재의 머리[木鼻: きはな]는 (전통 문양으로 조각돼 있는데) 모리야신사의 정문에서 가져다 끼운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의 전통 구법을 거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지모리가 의식적으로 전통양식의 차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며, 보방향의 수평재가 오로지 시각적 효과만을 위해 벽체 외장널과 기둥 사이에 걸쳐있다는 사실 역시 관례적 구조에 대한 그의 도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을 관통하는 수평재의 결구형식이 지극히 일본적임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13) 당초 여기에 기둥을 둔 것은 입면의 짜임새를 위해서였다고 후지모리는 서술한다. 藤森照信, 2001, p. 56 & 후지모리와 필자의 인터뷰, 2012.8.13.

14) ‘다테구루미(建てぐるみ)’라 불리는 스와의 민가는 주택과 흙벽의 창고가 한 지붕 아래 있는 형식이다. 藤森照信, 2001, p. 46.

15) 藤森照信, 2007, p. 32.

スレート)나 ‘거친 마감의 토벽(荒ぬり土壁)’ 등의 디테일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경사지붕의 처마를 기둥이 지지하는 양태는 (보편적이긴 하나) 지붕 위의 기둥 돌출 부분만 제외하면 실현된 건물의 측면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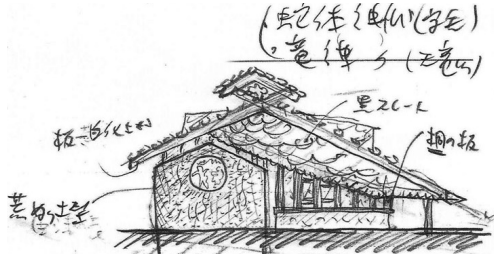


Fig.4 Fujimori's early sketch for Jinchokan, adopting the folkore house type in Suwa area

(2) 단계 2: 몽고 진흙집에 고무된 출입구 기둥

초기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투하던 후지모리는 우연히 접한 요시자카 다카마사(吉阪隆正, 1917~80)의 『주거의 형태(住居の形態)』(1986)를 통해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한다. 와세다에서 수학하고 그곳에서 교편을 잡은 요시자카는 르 코르뷔제 사무실에서 근무한 바 있는 (1950~53) 건축가다. 학부생이던 1940년, 그는 중국 내몽고를 답사하며 그 인상을 기록하고 스케치를 남겼는데 <Fig.6>, 이 책에 게재된 몽고 진흙집의 묘사가 후지모리의 마음을 강타했던 것이다.

그 초원 입구의 마을인 바오터우의 교외, 확실히 마을과 초원이 접한 부근에 진흙으로 만든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다. 그것은 제비가 만든 둥지와 같은 인상이었고, 사람이 겨우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을 뿐이다. 입구로 생각되는 곳에 곧지 않은 가느다란 나무줄기가 섰고, 거기서 지붕은 손잡이 형태로 일부를 잘라낸 진흙벽과 휘감기며 일체가 돼 있었다. (吉阪隆正, 1986)¹⁶⁾

후지모리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바로 요시자카가 서술한 바라 생각했으며, 그 광경을 대지 위에 선 토괴(土塊)와 기둥의 조합으로 간추린다.¹⁷⁾ 설계에 착수한 이래 전통과 동세대 건축가들의 눈을 의식하던 근심은 사라졌고, 요시자카의 묘사에 고취된 새로운 건물을 곧 스케치했다 <Fig.5>. 그 건물은 기본적으로 타원형의 흙벽 몸체가 주요 매스이고, 우측 하단에 위치한 곡선형 출입구는 사선으로 뻗은 기둥으로 지지된다. 여기까지는 요시자카의

서술에 상당히 근접한다. 그러나 그는 이에 더해 건물 꼭대기에 (비로부터 진흙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두고 출입구 뒤편으로 부속체를 덧붙였는데, 처마 역시 사선 기둥이 받치고 있다. 후지모리는 설계 당시 요시자카의 스케치를 보지 못했고 나중에야 이를 발견했다고 진술하며 오히려 그 사실을 다행스러워한다.¹⁸⁾ 두 스케치를 비교하자면 요시자카의 집이 훨씬 단순한 흙덩로서, 스스로 적었듯 지붕과 벽이 일체라 할만하다. 그리고 직립 기둥 역시 후지모리의 사선 기둥과 다른 점이다.

이번 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우선 후지모리가 기둥을 출입구 앞으로 가져온 사실로서 (비록 이를 직립시키지 않았지만) 최종안을 향한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시자카가 기둥을 ‘곧지 않은 ... 나무줄기(眞直ぐでない...木の幹)’로 묘사한 점은 더 중요한데, 이것은 이번 스케치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실현된 건물 및 이후 작품의 주요 특성이 된다. 물론 일본 전통의 도쿄노마 기둥[床柱] 등이 나무줄기의 자연스런 형태를 그대로 표현했기에 현대건축에서도 이런 기둥의 도입이 꼭 새로운 것만은 아니지만, 후지모리는 이 같은 기둥 사용법에 요시자카의 영향이 있었음을 시인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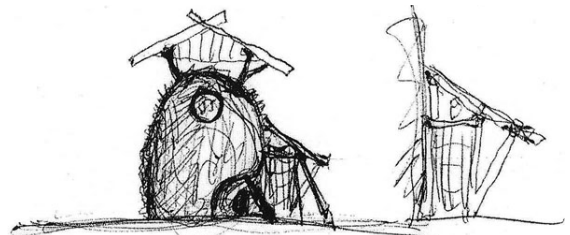


Fig.5 Fujimori's sketch for Jinchokan, right after reading Yoshizaka (Oct.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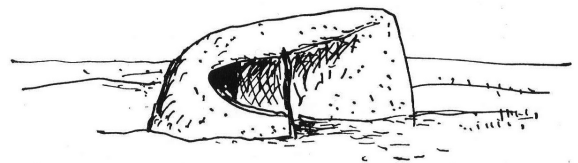


Fig.6 Yoshizaka's sketch of a Mongolian mud house

(3) 단계 3: 지붕 위로 우연히 돌출된 기둥선

요시자카에 영감을 받아 아이디어를 일신한 후지모리는 계속해서 디자인을 발전시켜 최종안에까지 이르는데, 그 가운데도 한 차례의 중요한 도약이 있었다. 그것은

18) 앞의 책. 그러나 사실 요시자카의 책에는 이 스케치가 이미 게재돼 있다. 후지모리 기억력의 착오일 가능성이 크다. 吉阪隆正, 『吉阪隆正集 第4巻: 住居の形態』, 勁草書房, 東京, 1986.

19) 후지모리와 필자의 인터뷰, 2012.8.13.

16) 藤森照信, 2001, pp. 47-48에서 재인용.

17) 二川幸夫(編), 『藤森照信読本』, GA, 東京, 2010, p. 56.

바로 기둥의 지붕 위 돌출로서, 이는 도면상에서의 궁리 가운데 우연히 착안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형태는 결정돼 있었지만 하강하는 지붕의 처마 끝이 어떤지 충분히 없다고 생각해 이리저리 궁리하던 중, 연필이 미끄러져 처마를 받치는 지주의 끝이 처마 수평선에서 튀어나오고 말았다. 아, 이거다 싶어 기둥을 지붕을 뚫고 돌출시켰다. (藤森照信, 2010)²⁰⁾

이 서술에 해당하는 스케치로 후지모리는 <Fig.7>을 제시하는데, 실상 연필선이 지붕 위로 돌출된 순간의 묘사 상태를 분간하기는 힘들다. 그 위에 여러 겹의 스케치가 덧입혀졌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처마 아래 두 개의 기둥이 지붕 위로 돌출돼 있음은 분명히 볼 수 있고, 나무를 모사한 이 기둥들이 단순한 구조용의 부재 이상을 함의함도 추정할 수 있다.²²⁾ 한편, 막바지의 단면 스케치인 <Fig.8>은 기둥, 벽면, 지붕 사이의 관계를 암시한다. 여기서 기둥은 처마 바로 아래에서 수평부재를 통해 벽면과 연결된 것으로 표현됐다. 그러나 2-1절(주 12)에서 서술했



Fig.7 Fujimori's sketch for Jinchokan, when the piercing column was concei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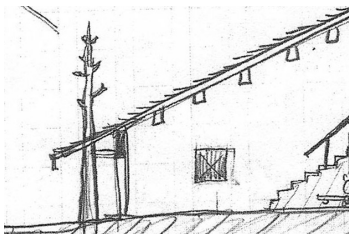


Fig.8 Section sketch of the piercing column

20) 藤森照信, 「藤森語録/二: 建築の外観の起源は柱」, 『TOTO通信』, 第54卷 第3号 (2010, 夏), p. 46.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서술과 해당 스케치는 다음 문헌에 출판됐다. 藤森照信, 2001, pp. 56-59.

21) 이 스케치에는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가 겹쳐져 있다. 하나는 지붕면이 기둥을 감싸고돌아 요철형을 이루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붕 끝이 일자인 상태에서 기둥이 그 안쪽을 관통하는 방안이다. 결국 후자의 아이디어가 채택된다. 단, 이후 기둥 숫자가 두 개에서 네 개로 증가한다. 후지모리와 필자의 인터뷰, 2012.8.13.

22) 지붕 위에서 기둥 줄기는 두 갈래의 나뭇가지로 나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두르고 있는 여러 개의 원반은 빗물로부터 기둥을 보호하기 위한 후지모리의 고안물로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형태상 나뭇잎 덩굴을 닮았다. 특히 우측 상단 상세도의 기둥 끝에 앉아 있는 새 모양의 철물은 실현된 것으로서 자연과의 친밀성 및 토착신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서는 3-3절을 보시오.

듯 이 수평재는 구조와 무관하게 기둥과 벽면 사이에 걸쳐진 정도로 시공됐으며, 기둥은 자체만의 독립성을 갖는다.

요컨대, 이 단계에서 하향 물매의 처마에 기둥을 직립시킨 점은 '단계 1'의 최초 아이디어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단계 2'의 요시자카의 영향으로 기둥은 자연의 나무로 적극 표현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점은 역시 기둥이 우연히 지붕 위로 돌출됐다는 사실로서 본고가 주목하는 바다. 이것이 앞으로의 후지모리 디자인에 필수불가결한 인자로 남기 때문이다.

2-3. 돌출기둥의 반복된 적용과 변이

후지모리의 첫 작품에서 도입된 돌출기둥은 바로 다음 작업인 탄포포하우스로부터 최근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그 적용은 구마모토 농업대학 기숙사처럼 진초칸에서와 거의 동일한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야키스기 하우스처럼 극단적 이미지 연출이나 또 다른 변이를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를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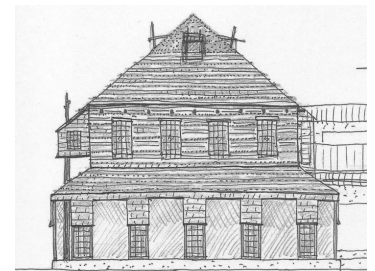


Fig.9 Tanpopo House, sketch

(1) 탄포포하우스(タンポポハウス, 1994~95): 도쿄도의 후지모리 자택으로서, 거의 최종단계의 스케치까지도 출입구 처마의 기둥이 2층 침실을 관통하며 하늘로 솟아있었다. 그러나 실현된 건물에서 이 기둥은 침실 아래에서 멈췄고, 2층 천장 지붕을 사선으로 관통하는 별도의 작은 돌출기둥만 남았다. 구조와 무관하다.



Fig.10 Tanpopo House, piercing columns executed only at the 2nd story window canopy

(2) 탄켄(炭軒, 1998~99): 실내에 설치된 작은 차실로서 돛형의 벽과 지붕이 솟으로 열기설기 짜여있다. 그 한편에 세워진 기둥은 도쿄노마 기둥의 현대적 변형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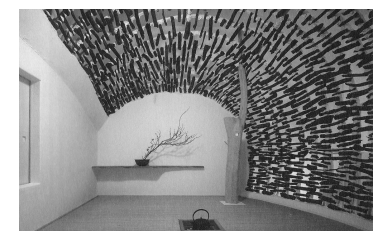


Fig.11 Tanken tearoom with a piercing column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고 돔의 틈새를 관통하여 솟아있다.

(3) 구마모토 농업대학교 학생기숙사(熊本縣立農業大學 學生寮, 1998~2000): 진초칸과 유사한 형식으로 출입구 처마에 여섯 개의 돌출기둥을 뒀다. 차이라



Fig.12 Kumamoto Agricultural College Dormitory entrance canopy

면 기둥 사이의 연결부재는 있지만 기둥과 벽체를 연결하는 수평재가 없다는 점이다. 초기 스케치의 중정 복도에 있었던 일련의 돌출기둥은 실현되지 못했다.

(4) 네무노키 어린이미술관(ねむの木こども美術館, 2004~06): 이 건물에는 두 개소에 돌출기둥이 있다. 주출입구 캐노피에는 탄포포하우스 2층 천창 지붕의 기둥을 확대한 형식이 설치됐고, 반대편 갤러리 출입구의 처마에는 단일한 돌출기둥 높이 솟아있다. 후자의 경우는 겉으로 분명히 노출된 수평부재와의 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구조적 역할도 일부 담당한다.



Fig.13 Nemunoki Children's Art Museum

(5) 야키스기하우스(焼杉ハウス, 2005~07): 서론에서 언급했던, '기둥이 지붕을 관통하여 돌출된 듯 보이도록 이미지를 연출한 것'의 예다. 처마 아래의 세 기둥은 보를 받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지만, 지붕 위 각 지점에 별도의 나무줄기를 세워 마치 기둥이 지붕을 관통하여 돌출한 듯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한편, 지붕 아래 나무줄기는 불규칙하게나마 꺾질을 벗기고 깎아냈지만 위에서는 꺾질도 벗기지 않고 잔가지마저 남겨, 마치 자연 상태의 나무에 지붕을 씌운 듯한 인상을 준다.



Fig.14 Yakisugi House

(6) 코울하우스(コールハウス, 2008): 2층 벽에서 사선으로 뻗어 나온 나무줄기가 처마를 관통해 돌출해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야키스기하우스처럼 별개의 나뭇가지를 처마 위아래에 붙여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이상의 돌출기둥이 적용된 후지모리 건축의 사례에서 우리는 구조, 마감, 상징에 관한 주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건축에서 기둥은 기본적으로 구조를 담당하는 부재인데, 후지모리의 돌출기둥은



Fig.15 Coal House

대개가 다른 구조재와 분리된 독립기둥으로서 구조적 기능과 무관하다. 대부분의 경우 구조적 필요가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혹은 상징적 제스처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이 같은 구조적 무의미성이 극대화된 예는 탄켄이다. (진초칸에서는 처마 밑에서 유심히 관찰한 후에야 알 수 있던) 기둥의 지붕 관통 상태가 한 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편, 야키스기하우스의 기둥은 보통의 것처럼 구조적으로 결정적이나 지붕 위의 나무줄기와 별개의 몸체다. 굳이 명명하자면 '의태(擬態) 돌출기둥'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건물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후지모리는 기둥의 마감을 가급적 자연스럽게 한다. 즉, 나무줄기의 바깥 면을 불규칙하면서도 얇게 깎거나, 혹은 꺾질만 벗기는 정도의 처리가 다수다. 특히 구마모토 기숙사의 예에서처럼 처마 아래는 대패로 깎는 (덜 자연적인) 마감을,²³⁾ 지붕 위에서는 꺾질만 벗기는 (더 자연적인) 마감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붕 위와 아래의 대비는 전술했듯 야키스기하우스에서 훨씬 확연해진다. 처마 아래는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인공이 개입된 공간인 반면 지붕 위는 완전히 공개된 자연의 공간인 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지모리의 돌출기둥이 갖는 상징적 측면은 일차적으로 자연주의 및 그와 연관된 토착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건축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함께 고찰해야 마땅할 듯하다. 따라서 이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고찰토록 하자.

3. 후지모리 기둥의 의미와 해석의 확장

왜 내가 그런 형태에 이끌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를 의식했을 때에는 내 안에 이미 있던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藤森照信, 2010)²⁴⁾

지금까지 살펴봤듯 우연한 계기로 착안된 후지모리의

23) 이 사례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기둥의 두 면은 톱을 이용해 직면으로 처리했고(太鼓落し), 나머지 두 면은 곡면 대패를 이용해 불규칙하게 깎았다. 藤森照信, 2007, p. 326.

24) 藤森照信, 2010.

돌출기둥은 그의 대표적 건축어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후지모리는 자신이 왜 그런 기둥에 매료됐는지 잘 알 수 없다고 서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 데뷔 이후 세계 각지의 입석(standing stone)과 입목(standing wood)을 답사함으로써 기둥을 세우는 일이 고대 태양신앙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건축 외관의 기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는 밝히는데,²⁵⁾ 이는 무척 중요한 단초다. 여기서 후지모리 기둥이 제시하는 ‘인류와 건축의 역사’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와 긴 안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단초는 건축가 이전 역사가였던 그의 관점이 잘 피력된 『인류와 건축의 역사(人類と建築の歴史)』(2005)에서 자세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²⁶⁾ 이 책은 초심자를 위한 건축사 입문서로서, 다른 건축사서와 달리 전체 약 170쪽 가운데 건축양식사는 20쪽에 그치며 나머지 대부분을 석기시대까지의 원시건축을 다루는 데에 할애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둥’과 관련된 이야기가 건축의 기원이나 태양신앙과 얽히며 무척 자세히 서술했음은 뜻하는 바가 크다. 한마디로 이 책은 후지모리가 타인을 위해 쓴 건축역사서임과 동시에 자신의 건축적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저술이라 볼 수 있다. 고로 이번 장에서는 이 책을 비중 있는 문헌으로 채용코자 한다.

앞 장의 서술이 후지모리 돌출기둥의 창작 경위와 적용 양상에 대한 후지모리 건축 안에서의 내적 논의라 한다면, 이번 장의 서술은 후지모리 기둥이 인류사와 건축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이를 두 가지 범주에서 볼 텐데, 첫째는 건축의 보편적 원류로서의 기둥이라는 범주로서, 여기서는 굳이 기둥의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둘째는 일본적 상황의 범주로서, 대표적 신사건축의 독립기둥이 후지모리 돌출기둥과 유사점을 가짐에 주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종합해 후지모리 기둥이 현대 사회와 건축 가운데 함의하는 바를 고찰할 것이다.

3-1. 건축의 보편적 원류로서의 기둥

후지모리는 『인류와 건축의 역사』에서 인간의 집과 신의 집을 구분해 각각 ‘주거[住い]’와 ‘건축’으로 불렀는데, 두 경우 모두에서 기둥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에 따르면 ‘주거’는 구석기의 움집에서 발전하여 신석기에 집다운 집으로 확립된다. 처음에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기울여²⁷⁾ 원시적 쉼터를 만들던 것이 점차 벌목한 통나

무를 이용하게 됐고, 부재가 기둥과 보 등으로 분화함으로써 형식을 갖춘다. 비스듬히 세우든, 똑바로 세우든 기둥을 세우는 행위는 집을 짓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주거’에서보다 기둥이 더욱 핵심적인 곳이 바로 신의 집인 ‘건축’이다. ‘건축’의 시작을 거석문화 속의 기둥인 입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지모리는 거대한 선돌이 태양신앙으로부터²⁸⁾ 비롯된 것이라 여기며, 바로 이 입석에서 건축의 외관, 즉 파사드가 기원했다고 강조한다.²⁹⁾ (이 주장은 밋밋했던 진초칸의 파사드를 보완하기 위해 돌출기둥을 세웠던 경위를 그대로 상기시킨다.) 즉, ‘건축’은 실용성에 중점을 둔 ‘주거’와는 달리 외적으로 신의 존재를 표현한 의식적(意識的) 창조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둥을 세우는 일은 실제적 기능을 넘어선 의식적(儀式的) 행위인 셈인데, 이 점은 현대건축에서의 기둥 디자인, 곧 후지모리의 기둥 디자인에 본질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 또한 그 기둥은 태양을 향한 신앙이든 무엇이든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책에서 후지모리는 ‘주거’와 ‘건축’의 전통을 서술하며 원시의 움집과 신석기 주거지, 그리고 스톤헨지와 같은 다양한 거석구조물을 사례로 들어 자기 논점의 보편성을 뒷받침한다. 그 가운데 아메리카 인디언의 텐트는 동반된 이미지로 인해 본고에서 크게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원추형 텐트의 골조인 가느다란 나무줄기들은 텐트 꼭대기에서 교차하며 돌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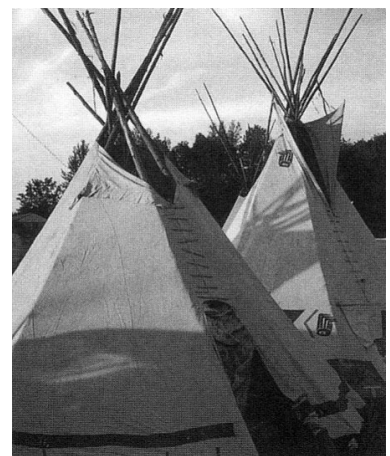


Fig.16 & 17 Stonehenge & America Indian's tent (Fujimori, 2005)

27) 원추형 구조에서 벽과 지붕의 구분은 불가하며, 비스듬히 세운 골조는 엄격히 말해 기둥보다 서까래[垂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기둥으로 해석하자.

28) 후지모리에 따르면 태양신앙과 쌍을 이루는 것이 지모신앙(地母信仰)인데, 이것은 구석기시대에 발생하였고 신석기시대에 탄생한 태양신앙과 공존하며 인류의 문명 및 건축과 함께 해 왔다. 지모신앙은 어머니, 태양신앙은 아버지로 비유되며 건축적으로는 내부와 외관을 뜻한다고 그는 여긴다. 앞의 책, pp. 45-70.

29) 앞의 책, pp. 63-65.

25) 앞의 글.

26) 藤森照信, 『人類と建築の歴史』, 筑摩書房, 東京, 2005.

때 있다. 비록 기둥의 돌출 여부가 이번 절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 도판의 삽입 이면에는 자신의 돌출기둥을 염두에 둔 후지모리의 의도가 있었을 법도 하다. 구법상의 차이가 있으나 나무골조가 자연스레 돌출되는 사례는 여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보편성에 대한 강조라 하겠다.

3-2. 일본 신사건축의 독립기둥과 후지모리 기둥

그러나 후지모리 기둥의 의미는 인류문명 보편의 것으로부터 범위를 좁혀 일본적 콘텍스트에서 더 진전된 고찰이 가능하다. 이 역시 『인류와 건축의 역사』를 따르도록 해보자. 그는 석기시대의 주거나 거석문화의 경우 일본이든 다른 지역이든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신사건축은 일본 고유의 독특한 요소가 있는데, 특히 기둥의 사용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된 신사로 스와타이샤, 이세진구, 이즈모타이샤를 들 수 있다.

스와타이샤는 진초칸이 건축된 스와지역에 속한 것으로서 모두 네 개의 신사로 이루어진다.³⁰⁾ 각각의 신사에는 ‘온바시라(御柱)’라는 거목의 독립기둥이 부지 영역을 설정하며 네 개씩 서있고, 6년에 한 차례 이들을 새롭게 세우는 의식이 거행된다. 큰 것은 높이 20m에 이르는데, 표면은 나무껍질만 벗기고 끝은 오벨리스크처럼 뾰족하게 다듬는다. 신이 나무



Fig.18 ‘Onbashira’ at Suwa Shrine

로 강림한다는 스와신앙을 따르면³¹⁾ 온바시라는 신을 만나는 장소이자 매개체다. 스와지역 종교의식의 중심이 모리야 가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지역 곳곳에서 미니어처의 온바시라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진초칸의 돌출기둥은 온바시라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대표적 신사인 이세진구(伊勢神宮)와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에 대해 후지모리는 온바시라와 같은 기둥을 덮기 위한 부속건물로 해석한다.³²⁾ 이세진구의 경우 본전(本殿) 마루 밑에 높이 1.5m, 두께 12cm의 ‘신노미하시라(眞御柱)’라는 기둥이 독립해 서있는데, 원래 기둥만 있던 것에 고상식(高床式) 건물을 씌웠을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즈모타이샤는 이보다 더 흥미로운 기둥을 갖는다. 3행 3열의 아홉 개의 기둥 중 ‘이와네바시라(磐根柱)’라고 불리는 중앙의 기둥이 그것이다. 이 기둥은 지면에서 올라와 마루를 지지함과 동시에 관통하여 실 중앙으로 솟아오르고 천장마저 관통하지만, 지붕까지는 이르지 않고 중도에 멈춰버린다. 이것은 이세의 신노미하시라가 연장된 양상으로, 본고는 이것이 후지모리 돌출기둥의 기본적 구성 원리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차이라면 지붕 위로까지 돌출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후지모리 작품 가운데 실내에 설치된 탄켄의 기둥이 유사하며 진술하진 않았으나 츠바키성(ツバキ城, 1998~2000)의 내부 기둥이 근접한 형식이라 하겠다. 후지모리는 돌출기둥을 유연히 착안했지만 『인류와 건축의 역사』의 지면을 빌어 그 디자인의 근거를 소급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이 책에서 자기 작품을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말이다. interior <Fig.21>은 지금까지 서술한 일본 신사의 기둥과 후지모리 기둥을 개략적으로 비교한 도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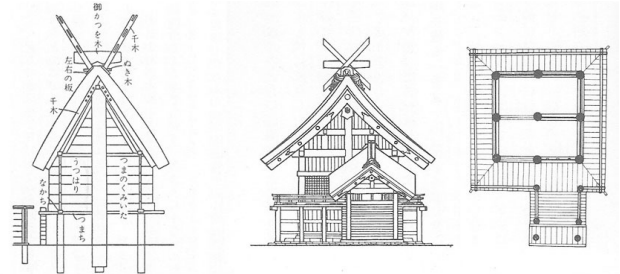


Fig.20 Ise Shrine (left) and Izumo Shrine (right) (Fujimori,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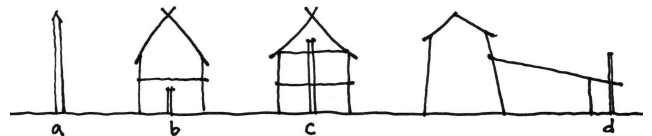


Fig.21 Comparative diagram of Fujimori column with Japanese Shinto-shrine columns: a. Onbashira (Suwa); b. Shinnomihashira (Ise); c. Iwanebashira (Izumo); d. Fujimori column at Jinchokan (Author’s drawing with no scale)

30) 스와타이샤는 전궁(前宮)과 본궁(本宮)이 있는 상사(上社)와 춘궁(春宮)과 추궁(秋宮)이 있는 하사(下社)로 나뉜다.

31) 앞의 책, pp. 116-117.

32) 앞의 책, pp. 120-128.

3-3. 후지모리 기둥이 함의하는 바

앞의 두 절을 종합해 볼 때, 후지모리 기둥은 우선 보통의 기둥처럼 건축의 기원과 관계하지만 더 나아가 실질적 구조와 무관하게 하늘을 향한 신앙을 상징한다. 이러한 원초적 신앙의 의미는 일본적 상황에서 더욱 긴밀해지는데, 스와의 온바시라, 이세의 신노미하시라, 이즈모의 이와네바시라와 같은 독립기둥의 존재 때문이다. 특히 이와네바시라가 마루와 천장을 관통하여 중도에 멈춘 것은 후지모리 돌출기둥과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다.

돌출기둥이 적용된 후지모리 건축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종교성이 가장 농후한 작품은 역시 첫 프로젝트였던 진초칸이다. 전술했듯, 이것은 온바시라의 현대적 적용으로 자연스레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나기까마(薙鎌)’라 불리는 금속(낫의 날)으로 만든 여러 마리의 새를 기둥의 돌출부에 앉힌 것은 토착의 신앙을 보여준 절정의 모습이다.³³⁾ 하지만 이후의 작품에서는 종교성이 그다지 표출되는 것 같지는 않으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다 해도 후지모리 기둥 이면의 종교적 함의를 말끔히 지우기는 힘들다. 이는 일본의 주택에서 중시하는 도쿄노마의 기둥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현재는 종교적 의미가 크게 퇴색했으나 도쿄노마의 기둥을 불교 예식에서 찾는 설이 무척 유력하기 때문이다.³⁴⁾ 그리고 일본 민가에서 신성시됐던 다이코쿠바시라(大黒柱) 역시 그 상징성의 측면에서 연관될 수 있겠다.³⁵⁾ 후지모리는 『인류와 건축의 역사』에서 자연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을 제외한 다른 근



Fig.22 'Nagigama' or metal birds on the piercing column of Jinchokan

대국가에 그 같은 인류 종교의 원형이 추방됐음을 꼬집는다.³⁶⁾ 그의 기둥 디자인에는 이처럼 토착신앙의 암시를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의 건축에 만연한 자연스러움 속의, 혹은 자연스럽게 보이려는 것 속의 인위성이다. 사실 건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위적이지만 그의 건축은 의도적인 부자연스러움과 모순을 내포한다. 기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야키스기하우스 기둥의 의도적 단절과 표면 처리의 불일치가 그 예다. 자연의 나무처럼 보이는 기둥을 초석 위에 당당히 올린 점이나 지붕 위에 절단된 나뭇가지를 세우고 거리낌 없이 철물로 지지해주는 점은 자연의 나무에 대한 역설의 이미지다. 즉, 그의 건축은 원시의 자연스런 자연주의와는 다른, 현대의 부자연스런 자연주의를 선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석기시대의 건축이 가용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한 자연주의라면, 현대의 후지모리 건축은 가용한 테크놀로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감추는 자연주의다. 혹은 반대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병치하거나 충돌시키는 방법도 종종 채택한다. 여기에 상당한 불안과 기묘의 분위기가 깃들게 되는데, 돌출기둥이야말로 인위적 자연성에 원시 종교의 함의를 더함으로써 그러한 심리를 유발하는 인자라 하겠다.³⁷⁾

4. 결론

이 연구는 일본 건축가 후지모리 테루노부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기둥, 즉 지붕을 뚫고 나오는 기둥 형식에 주목하고, 이를 ‘돌출기둥’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이런 기둥이 어떤 연원과 의미를 담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지모리의 건축가 데뷔작인 진초칸에서 시작된 돌출기둥은 처음부터 의도됐다기보다 스케치 도중 지붕 위로 우연히 돌출된 기둥선에서 예기치 않게 착안된 것이다. 입면의 허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만큼 이것은 구조와 무관한 독립기둥으로 계획됐다. 그리고 이 기둥이 끈게 재단되지 않고 자연의 나무 양태를 간직한 데는 설계 도중 접한 요시자카 다카마사의 몽고 진흙집 묘

33) ‘나기까마’는 풀을 베던 낫[鎌]이 변형된 것으로서, 신이 머무는 나무에 낫을 꽂던 관습에서 비롯됐다. 스와지방에서는 온바시라를 별목하기 전에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진초칸에서는 준공의식으로 나기까마를 박아 넣은 것이다. 藤森照信, 2001, pp. 125-127. 특히 ‘새’는 고대 사람들이 왕의 혼을 담고 있다고,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이어준다고 믿었던 동물이다. 일본 고대의 청동거울 ‘가옥문경’에서 새를 확인할 수 있다. 藤森照信, 2005, pp. 101-102.

34) 오카쿠라(*The Book of Tea*, 1906)와 요시다(*Das japanische Wohnhaus*, 1935)의 견해가 그러하든, 도쿄노마의 기둥 및 상징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拙稿, 「알토의 마이레아 저택 미술전시개념에 나타난 일본주택 도쿄노마의 영향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5권 3호 (2006.8), pp. 43-57.

35) 前久夫, 『古建築のよみかた図典』, 東京美術選書, 東京, 1980, pp. 16-17 & 吉田鉄郎, 『日本の建築』(원저, *Japanische Architektur*, 1952), 薬師寺厚 訳, 鹿島出版会, 東京, 2003, p. 199.

36) 그는 세계 4대 종교라 불리는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자연신앙을 부정하고 그 자리를 ‘언어’로 대체하며 성립했음을 지적한다. 藤森照信, 2005, pp. 128-129.

37) 이러한 불안과 기묘의 심리는 현대 도시의 건축과 공간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언캐니(uncanny)’의 또 다른 양상으로 읽을 수 있다. 건축의 언캐니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Essays in the modern unhomey*, MIT Press, Cambridge MA, 1992.

사가 상당한 영향을 줬다. 둘째, 이후 작품의 돌출기둥은 구마모토 농업대학 기숙사에서처럼 진초칸의 기둥 형식이 차용된 경우도 있고, 야키스기하우스처럼 지붕 위에 나뭇가지를 별도로 세워 기둥이 돌출된 것인 양 연출한 사례도 있다. 이들 대개의 경우 돌출기둥은 첫 사례에서처럼 구조와 무관하며, 시각적 효과나 상징적 제스처를 위한 잉여다. 그리고 이 기둥들은 나무 표면을 얇게 깎거나 껍질만 벗기는 방법, 혹은 드물게나마 껍질마저도 남기는 방법을 통해 자연 속의 나무로 모사된다. 셋째, 『인류와 건축의 역사』에 나타난 후지모리의 건축관을 따르다면 기둥은 건축의 보편적 원류이자 태양신앙의 상징이다. 특히 일본 신사의 독립기둥은 후지모리의 돌출기둥과 연관될 수 있는데, 스와의 온바시라는 진초칸의 돌출기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이즈모의 이와네바시라는 마루와 천장을 관통하여 중도에 멈춘 점에서 후지모리 기둥의 형식과 유사하다. 즉, 후지모리 기둥의 이면에는 일본의 자연주의 토착신앙에 대한 암시가 짙게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후지모리 기둥의 자연주의가 수반하는 의도적 인위성, 구조와 마감의 도발적 불일치와 같은 모순이 원시 종교의 함의와 함께 기묘한 불안을 연출함 역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본고를 마무리하며 후지모리 건축에 내재하는 그 같은 교묘한 모순과 불안감에 대한 확장된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20세기를 기점으로 역사가 종말을 고했는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더 이상 기술문명에 진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후지모리의 가정을 고찰해보자(2005, p. 166).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유토피아에의 기대가 허물어진 후, 기술주의의 무력함을 보상하려는 심리가 깔려있을 법하다. 혹여나 20세기 후반의 낙천적 기술주의가 무너졌다면, 그 폐허의 디스토피아로부터 도피할 새로운 자연주의가 필요할 것이다.³⁸⁾ 어쩔 수 없이 아로새겨진 파멸의 흔적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향한 밀의(密議)적 열의를 높은 기둥 끝에 드리우는 것, 이것이 후지모리 건축이 인류 무의식의 저변으로부터 충동하는 바는 아닐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번 연구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References

1. Terunobu Fujimori, Terunobu Fujimori Y'Avant-Garde Architecture (藤森照信 野蛮ギャルド

- 建築), TOTO, Tokyo, 1998.
2. Terunobu Fujimori, Until Tanpopo House Being Completed (タンポポ・ハウスのできるまで), Asahi-bunko, Tokyo, 2001.
3. Terunobu Fujimori, History of Humankind and Architecture (人類と建築の歴史), Chikuma-shobo, Tokyo, 2005.
4. Terunobu Fujimori, Architecture of Terunobu Fujimori, Venice Biennale: 10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2006, Japanese Pavilion, Japan Foundation, 2006.
5. Terunobu Fujimori, Terunobu Fujimori Architecture (藤森照信建築), TOTO, Tokyo, 2007.
6. Terunobu Fujimori, 'Column, the Origin of Architecture (建築の外観の起源は柱)', TOTO Communication (TOTO通信), Vol. 54, No. 3 (2010, Summer).
7. Yukio Futakawa (ed.), Terunobu Fujimori Reader (藤森照信讀本), GA, Tokyo, 2010.
8.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Essays in the modern unhomey, MIT Press, Cambridge MA, 1992.
9. Hyon-Sob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apanese Tokonoma on Aalto's Art Display Concept in Villa Mairea (1937-39)',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건축역사연구), Vol. 15, No. 3 (August 2006), pp. 43-57.
10. Hyon-Sob Kim, 'The Exciting Architectural Adventures of the Future Boy, 'Terubo': Terunobu Fujimori Architecture, as viewed from Dorobune', SPACE, No. 536 (July 2012), pp. 16-21.
11. Hyon-Sob Kim, Illusion of Ruin and Rebirth: A Study on Terunobu Fujimori's Diploma Design (1971),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 28, No. 9 (September 2012), pp. 203-210.

<Source of Illustrations>

- 1,2,3,10,12,13,14,18,19,21,22 (Author)/ 4,5,6 (Fujimori, 2007)/ 7,9 (Fujimori, 1998)/ 8,15 (Futakawa, 2010)/ 11 (Fujimori, 2006)/ 16,17,20 (Fujimori, 2005)

접수(2012. 10. 11)

수정(1차: 2012. 12. 24)

게재확정(2012. 12. 25)

38) 후지모리 건축에 내재하는 폐허와 소생의 메타포는 그의 동북대학교 학부 졸업설계(1971)에 이미 드러났다. 拙稿, 2012.9.